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의 생명을 간청하다  
창세기 44:18~3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일주일은 치유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 공부할 때는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요셉의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의 마음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30세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현실에서 찌들리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서하는 자, 용서받지 못할 자**

이번 일주일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형들에 대한 그의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나한테 잘 해주는데 못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 말고 상황이나 상대에 상관없이 원수일지라도, 나한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요셉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압니다. 헌신한 것도 다 압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 사랑하면서도 고민하는 갈등,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중에 치유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조건없이 사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사랑이나 상황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랑, 십자가가 있는 사랑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누구냐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두번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내

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절하면 또 만나고, 오른 빵을 치면 왼 빵을 돌려대고, 걸 옷을 달라고 하면 속 옷까지 주고, 오 리를 가자고 하면 십 리를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좋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습니다.

세번째, 사랑은 세월과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 누가 이웃인가

제가 연예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것을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광규석씨, 구봉서씨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성령받고 예수믿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후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연예인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연예인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철야기도회를 하고 산기도회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너무 흘려서 연예인들은 교회에 올 때 마스크라를 다 지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제 속에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그들이 청소하고 의자정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계속했었습니다. 한참 하다보니까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물이라도 좀 떠다놓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연예인교회를 떠나 미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저 그냥 갑니다’라고 했더니 제 마음 속에서 ‘언제는 안 그랬나?’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변했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는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율법으로 변했습니다. 보상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학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연예인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되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어느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냐?”

거기서 사랑의 놀라운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사람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첫번째,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사랑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따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대상에 따라 여러분의 사랑이 변하는, 농도가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율법의 완성

사마리아인이 강도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시간을 얼마나 손해 보고, 돈은 얼마가 들고, 도와주고 난 후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기에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원수라도 필요하면 내가 간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그가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보는데 들어간 돈은 내가 돌아오면서 줄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사랑의 질은 요셉이 했던 사랑의 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질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대방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랑, 다 버리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 사랑은 바닥난 사랑입니다. 아무리 해도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없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 첫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메시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될까요? 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내 사랑의 질이 바뀌게 하옵소서.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하옵소서.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계산하지 않는 사랑, 배신당해도 섭섭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 덫에 걸리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형들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형들은 자신도 모르는 낭패에 빠지고 맙니다. 형들이 잘못해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친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친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 보따리를 열어보니 거기 은잔과 돈이 있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는 '이게 아닌데, 난 잘못된 것이 없는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환장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은 누명을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 통하지 않습니다. 음모로 가득찬 세상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갈 능력이 있어도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했는데 벗어날 힘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가난해 집니다. 이 때 이 사람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겸손하거나 마음이 넓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내 의가 있고 내 생각을 잠재웠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야 속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형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포기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 지고 정직해 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0년 전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년 전과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성격은 신앙의 틀입니다. 당신 성격이 변하지 않고는 무엇을 갖다 집어 넣어도 안됩니다. 틀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집어 넣어도 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 형들은 기막힌 상황에 처합니다. 16,17절을 보면 ‘우리 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포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 가족의 변화를 봅니다. 그들은 같은 형제라도 자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의 것을 다 팽개치고 가서 구해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웃으면서 이 상황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변했습니다.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발견하는 변화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은 유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유다가 변명하기에 좋은 상황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끝까지 묻고 늘어집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한 사람은 당신 요셉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아들만은 절대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베냐민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 궁리를 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해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젊었을 때에는 힘있는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는 아버지는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약속의 근거인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붕괴되는 가족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다. 너무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현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 생명을 건 기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야곱에게서 열 두 아들이 나게 하셔서 열 두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까지 공부할 때에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부인과 관계를 하고, 살인을 하는 등 형편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와 보니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열 두 지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유다지파는 예수님의 족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미숙했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만지고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형들을 통해 듣는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32,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이판사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안됩니다. 아버지에게 두번 다시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명과 바꾸는 아름다운 청원을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비밀입니다.

생명을 바꾸는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대가가 없고 손해가 없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내서 만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하나님 앞을 아브라함은 가로막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는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을 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립니다. 대가를 치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놀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태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한번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